

우리나라 광학 및 광기술 학술교류의 중심축 한국 광 학 회



申相永

〈한국광학회 회장/한국과학기술원 부원장〉

90년 창립 ... 회원 2천여명 활약

한국광학회(Optical Society of Korea)는 광학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을 통해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광 과학자와 공학자가 1990년 2월 설립한 비영리 단체이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회원 수는 2천여명에 이르며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국내 학술단체 중에서 중견학회의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광학(Optics)은 뉴턴시대부터 과학의 중심을 이루어온 학문으로 주로 물리학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 새로운 전기가 된 1960년 레이저의 발명 이후 첨단 기술의 핵심을 이루면서 여러 산업 분야로 응용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광학계는 해방 이후 1970년대 초까지는 일부 대학 및 연구소에서 열악한 환경 하에 소규모 기초 연구를 수행하는 데 그쳤다. 그 후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경제개발과

함께 학계 및 연구기관의 광학 관련 연구 인력이 증가하면서 연구개발의 본격화가 시작되었다. 1980년대 말에 이르러 한국물리학회, 대한전기학회, 대한전자공학회의 분과에서 활동하던 광 관련 전문가들은 광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유기적인 학술활동을 위하여, 광학 및 레이저에 대한 연구와 학술교류를 위한 한국광학회를 창립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광과학 등 6개 분과위

우리 학회는 학술단체의 가장 중요한 소임인 학술활동으로 국영문 학술지 발간과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회원의 전문 분야에 따라 광과학, 광기술, 광자기술, 양자전자, 광정보처리, 시각 및 의 광학 등 6개 분과를 구성하여 전문 학술활동의 활성화를 기하고 있으며, 대구경북 지회가 결성되어 그 지역 내의 학술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학술지로서는 국문 학술지로 「한국광학회지」를 연 6회 발행하고, 영문 학술지로 「Journal of Optical Society of Korea」를 연 4회 발행하고 있으며, 한국광학회의 홍보를 위하여 「광학과 기술」 잡지를 연 4회 발행하고 있다. 이 중 「한국광학회지」는 한국 학술진흥재단에서 2000년 실시한 학술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여 우

수성을 인정받았으며, 2001년 실시한 등재후보학술지 계속평가에서도 '적격' 판정을 받아 국내 우수 학술지로서 자리잡고 있다. 영문 학술지는 창간 이후 짧은 기간이지만 질적 성장을 거듭하여 Science Citation Index (SCI)에의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홍보지인 「광학과 기술」은 광학 관련 연구기관 및 연구활동 소개, 기업체 소개, 해외 학술대회 참가기, 석·박사학위 취득자 소개 등으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활발한 정보교환을 꾀하고 있다. 학술대회로서는 매년 정기총회 및 동계 학술발표회와 하계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각 분과는 매년 워크숍, 심포지엄, 컨퍼런스 등을 1회 이상 개최하여 회원 상호 간의 연구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학문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광기술 분과의 '광기술 워크숍', 광자기술 분과의 '광전자 및 광통신공학 학술회의'와 '광자기술 학술회의', 광정보처리 분과의 '광정보처리 학술회의', 광과학 분과의 국제학술회의인 '레이저분광학 심포지엄'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광전자 및 광통신공학 학술회의'와 '광자기술 학술회의'는 대한전자공학회, 대한전기학회, 한국통신학회와 공동 주최하여 최근 참가자가 각각 7백~8백명을 상회하는 국내 최대의 광통신 학술대회로

1990년 2월 창립한 한국광학회
출범 10년의 짧은 역사에도 2천여명의 회원이 결집하여 증견학회로 자리잡고 있다.
국문·영문의 2개 학술지와 「광학과 기술」이라는 계간잡지도 발행하고 있는 이 학회는
매년 봄·가을 두차례의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First International Photonics Technology conference(IPTC 2001, 2001년 9월 12일~14일, 광주비엔날레)’

자리잡고 있다.

또한 한국광학회는 창립 이래 여러 차례의 국제 학술대회의 한국 유치 및 개최를 통하여 국제적 학술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광학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높여왔다. 1994년 ‘Twenty-First International Congress on High Speed Photography & Photonics’를 필두로, 1996년 ‘Seventeenth Congress of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Optics(ICO-17)’, 1997년 ‘Second Optoelectronics and Communications Conference (OECC ’97)’, 1998년 ‘First Asian Pacific Laser Symposium(APLS ’98)’, 1999년 ‘CLEO/Pacific Rim ’99’, 그리고 2001년에는 한국광산업진흥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한국 주도의 ‘First International Photonics

Technology Conference(IPTC 2001)’ 등 다양한 국제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주최하였다.

미국·일본 등과 교류 협정

이외에도 미국광학회, SPIE, 일본광학회 등 외국학회와의 협정 체결을 통하여 상호 정보 및 인적 교류를 행하고 있으며, 광 과학기술자의 초청을 통하여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다.

한편 회원의 연구를 진작시키고 우수한 연구자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매년 논문, 저서 등의 연구 업적이 뛰어난 사람에게 학술상, 논문상, 논문장려상, 기술상을 수여하고 있다. 그리고 헌신적으로 학회에 공헌한 회원 및 산업체에 공로상, 감사패 등으로 포상하여 그 업적을 널리 알리고 있다. 학회 재정은 창립 초기의 열악한 상황에서 시작하여 1995년

현재의 학회 사무실에 입주하기까지는 상당한 곤란을 겪었다. 그 무렵 회원들의 기부금 동참과 그 후 수차례의 국제학술대회의 잉여금으로 학회의 기금을 결성하여, 지금은 증견학회 수준 이상의 탄탄한 재정을 확보하여 미래의 성장에 대비하고 있다.

본 한국광학회는 10년 남짓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뜨거운 애정과 참여 및 전·현직 임원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나라 광학 및 광기술 학술교류의 확고한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회원 분포가 광학 관련 과학자와 공학자가 균형을 이룬 장점으로 순수 기초연구에서 응용개발연구까지의 넓은 학술활동 범위를 확보한 학회 중의 하나이다. 지난 10여년간이 창립 이후 기반다지기과 세계 유수학회로의 도약 준비기간이었다면, 앞으로 10년간은 세계 유수의 학회로 본격적으로 발돋움하는 기간이 될 것이다. 앞으로의 중요 과제는 논문의 질적 향상을 통한 학술지의 국제 수준 지명도 확보, 국제 학술대회의 자체 운영, 학회의 정보화를 통한 서비스의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한국광학회가 짧은 기간 안에 이 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인 회원들의 열정과 참여로 보아 향후 세계 수준의 학회로 도약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㉞